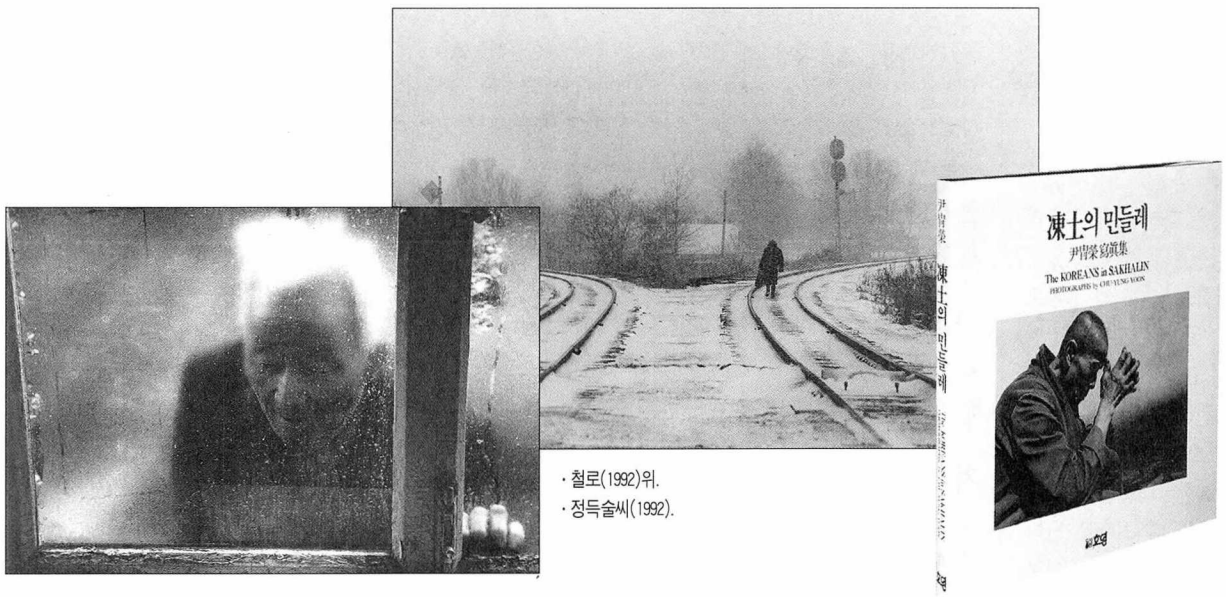
다시 보는 사진집 ⑧

잊혀진 존재, 사할린 동포들의 초상

윤주영《동토(凍土)의 민들레》



· 철로(1992)위.
· 정득술씨(1992).

이 땅에 봄꽃이 만발한 지금도 사할린엔 거센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다. 전쟁의 난장이 벌어진 가운데 징용의 철퇴에 갇혀 짐짝처럼 실려간 동포들. 인간 이하의 학대와 모진 노동의 기나긴 갱 속에서 뭉개진 육신을 끌고나온 지도 어언 50년. 사진작가 윤주영(71)의 사진집《동토의 민들레》(1993, 호영)는 살아남은 자들의 아픈 시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전쟁과 다름없었다. 그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무기는 오직 고향을 그리는 마음뿐. 조선인, 일본인, 소련인을 거쳐 지금은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4만을 헤아리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이제는 고작 2천명이 남아 생의 영멸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도 고향 땅을 밟고 싶은 염원은 간절하다.

눈덮인 사할린의 풍경 속에 등장하는 것은 핍박의 세월을 상징하는 듯한 폐광촌의 을씨년스런 모습이다. 가슴 속에 묻은 고향을 향해 기도하듯이 고개를 떨군 신경진씨, 흰머리 성성한 얼굴로 조상의 사진을 바라보는 김정부씨 부인, 처참하게 뭉개진 손과 잘려나간 팔을 내보이는 우무동과 정기찬씨, 그리고 흐릿한 기억의 유리창에 갇힌 정득술씨의 주름진 얼굴이 가슴 저리게 만든다.

거친 땅에 뿌리내린 민들레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에게도 삶은 있다. 눈이 휘날리는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는 할머니, 청소를 위해 새벽길을 나서는 김봉진씨, 이민 3세대인 신랑 임실라씨와 신부 김올레야씨, 고향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반갑게 대해주던 임판개씨 부부. 러시아식 장례절차에 따라 장지로 향하는 사람들의 그늘진 얼굴에서 힘겨운 삶의 무게가 교차한다.

정치학자에서 언론인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문화공보부장관, 국회의원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작가는 늦깎이로 사진의 길에 들어섰다. 정계 은퇴 후 10여년간 해외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으로《내가 만난 사람들》(1987, 열화당),《다시 만난 사람들》(1988, 조선일보사),《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1990, 조선일보사) 등의 사진집을 펴냈다. 칠순인 지금도 젊은이 못지 않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4호/1998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弘益컴퓨터印刷
서울·마포구·서교동 337-25 정수빌딩 2층

자체개발 S/W와 보강된 내용 및 시설은,
- 사전 및 색인 자동분류프로그램(한글·한문·영문혼용)
- 바코드출력 S/W(ISBN·ISSN·등재부) 및 WP 변환 S/W
- 한글 145종, 한문 50종(교과서체 4종), 영문 523종 러시아어 8종, 일본어 8종, 중국간자체 5종. 약물 30,000자
- 컬러편집기 20대, 출력기 3대(컬러출력 1대) 및 기타.

위의 시설로써
- 수식·외국어·학습참고서·컬러물 등 각종 전문서적을 원활히 조판합니다.
- 분류작업 없이 송고된 사전류 원고를 자동 분류합니다.
- 조판된 내용은 아래아 한글 등으로 변환해 드립니다.
- 바코드를 원판 제작하여 이미지파일(EPS, TIFF)로 보내드립니다.

각종 책자를 편집해 드립니다

바코드인쇄 원판제작 이용시에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 부가기호만 알려주십시오.

편집·발송

●전화: 323-6333~5, 팩스: 337-0460
●E-Mail: 천리안 hongik88 /하이텔 hongik99 /인터넷 hongik88@chollian.net

경력직원 모집

한국문화의 새로운 터전이 될 국가산업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에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취적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을 지니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해당분야 : 회계 · 총무업무 / 기획관리 경력직 약간명
· 자　　격 : 대졸 이상(외국어와 작문, PC사용 능숙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원고지 5매)
· 제출기한 : 1998년 4월 25일(토)까지 접수

* 서류심사에 합격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404호
전화 · 511-9566~8　　팩시밀리 · 511-9569